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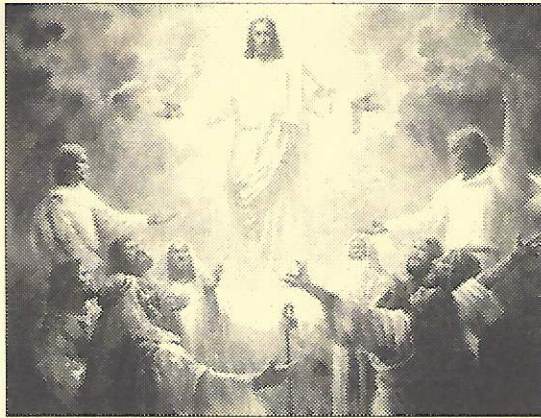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 축일

제35권 25호(나해) 2015년 5월 17일

[묵상]



주님 승천 대 축일

신앙은 ‘믿고(信) 올려보기(仰)’

인간(人間)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홀로 보는 방식으로 - 미성숙한 만남의 자세이다. 자기중심적으로 타자를 대하는 방식.

둘째는 마주 보는 방식으로 - 성숙한 자세.

‘나’와 ‘너’가 마주 보며, 서로를 헤아리며 맞추려고 애쓰는 자세,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너를 통해서 기쁨/행복/충만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너 때문에 슬픔/고통/추락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난다.

셋째는 올려 보는 방식으로 - 완전한 방식

‘나’와 ‘너’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는 자세.

곧 서로가 목적과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와 너가 함께 완전한 이상을 찾고 그 이상을 올려보며 그 쪽을 향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이상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만남의 과정.

예수님은 이제 ‘마주 보는’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앙은 ‘믿고(信) 올려보기(仰)’를 하는 행위.

‘하느님’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상임을 결단(信)하고

그 분을 우러러 올려보며(仰)

그 분 안에서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화 (장래지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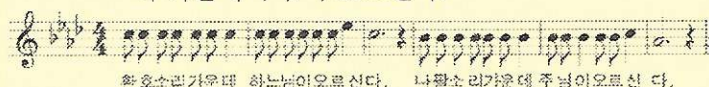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덕철 루카
	(생) 김재영 즈카르야 & 정희교 엘리사벳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필주 바오로, 변혜경 올리안나, 전시웅 요한, 연옥 영혼,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재욱,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정두연 엘리사벳
	(생)서성용 베드로, 남인구 야고보, 이만표 가브리엘, 이귀분안나 & 박명자 크리스티나 & 임정자 분다, 김용범 요한 & 장혜수 라파엘라, 박인수 프란치스코, 정린다 켈마 & 정엘리스 클라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1-11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하느님이 온 우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르코(Mark) 16,15-20

영성제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65	104	172
봉헌	394	165	264
성체	376	287	290
파견	321	317	165

성령과 쉼

제4장 은사의 식별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우심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알게 해 주고 체험하는 탁월한 장소이다. 우리는 성령을 교회가 선포하는 성경 안에서, 교회의 전통과 교도권 안에서, 성사와 전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은사와 직무 안에서, 선교적 삶의 표징들 안에서, 성인들의 증거 안에서 알게 된다. 성령께서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령쇄신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 주셨다.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성령의 이러한 역사(役事)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목자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장구한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가 거듭 쇠신되어 새롭고 거룩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좀 더 새롭고 거룩하게 되도록 성령의 오심을 간청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고(사도 1,12-14 참조), 그러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사도 2,1-3 참조). 마찬가지로 종말의 영광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교회도 언제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거듭 청해야 할 것이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끝>

2014년 7월6일(주일)부터 약 11개월동안 본란에 연재해온 '올바른 성령 이해'가 이번 주일(2015년 5월17일)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산책'을 연재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

1.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사도 1,11)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영국의 소설가 C. 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몸의 부활’을 위한 한 가지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간은 오직, 죽으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임재(臨在)’를 연습할 수 없다면, 하느님의 부재(不在)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던진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결국 주님의 승천은 제자들과의 ‘생이별’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동행(同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통하여 제자들은 더욱더 그분과 일치하는 길을 찾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페 1,23)

언젠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평일미사 강론 중에, “교회는 그저 갓난아기가 잘 자도록 돌봐주는 ‘베이비시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잠자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훌륭한 베이비시터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아기에게 엄마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代替)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황님께서서는 “교회는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새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자기 엄마로부터 이른바 ‘조상들의 언어’(2마카 7,25,27 참조)를 배워서 그 가정의 진정한 일원이 되듯이, 하느님의 백성들 역시 ‘어머니인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로 충만케’(에페 1,23 참조) 되는 삶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마르 16,20)

복자이신 켈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서는 “저는 다만 하느님 당신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 글씨를 쓰시든 지우시든 저는 다만 손에 들린 연필입니다.”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언어’(마르 16,17)의 표징도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은 ‘낯은 언어’에 묻혀서 하느님과 소통하지 못하여 죽어 사라질뻔한 존재들이 그분과 일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떠나가서 곳곳에’(마르 16,20) 확신에 찬 증거를 하였습니다.

4.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큰 기쁨’으로 가득차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루카 24,52-53 참조)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로올라의 이나시오 성인에게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Ad maiorem Dei gloriam)’ 살 수 있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승천하신 주님과 더욱 일치하는 삶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언어’로 그분께 영광을 드리시길 빕니다. 아멘.

◆ 정연정 신부 /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

[기도묵상]

기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집중입니다.

- 시몬 베유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도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엄영숙 마리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제12회 백삼위환마당 가족체육대회(17일, 오늘 주일)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 일정 : 오늘주일(17일) 11:00am~5:00pm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피구, 엉덩이 뒤에 풍선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짹짹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 경품 : 삼성노트북, 한남마켓상품권, 베스트바이 선물권
- 경품추첨대상 : 추첨 진행중 참석자로 제한, 추첨권 당일배포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5월 안나회 모임을 임시로 변경합니다.

- 시간 : 5월17일(오늘주일) 10시 미사후

◆ 5월 요셉회 모임... 매월 셋째 주 정기모임은 없으며 체육대회 당일 회원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 2015-201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1차접수 : 6월14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6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학기 준비를 위하여 학생 수 파악이 필요하오니, 가능한 한 1차 접수 부탁 드립니다.

◆ 주일학교 첫 영성체반 학부모 모임

- 올해 첫 영성체 대상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5월 24일 일요일 10시30분
- 장소: 교사실

◆ 주일학교 썸머캠프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일시: 6월26일 금요일 - 6월 28일 일요일
- 대상: 3학년-12학년 (선착순 30명)
- 참가비: \$60 (no refund)

◆ 오는 5월 24일 일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26일(화) 휴무입니다.**

◆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성모의 밤 행사 안내

- 제목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미사
- 일시 : 5월29일(금) 오후 7시 30분
- 준비 : 개인이 봉헌하실 초는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초 판매 \$2.00
- 29일, 금요일 오전미사는 없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17일(주일) *체육대회
- 5월24일(주일) *Memorial Day : 친교 자리 없음
- * 주일학교 : 주일학교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옥보 김원호 김운진 김정희 김찬구 노혜숙 류현옥 민기남 박영희 박인식 박정자 변정선 송기철 유경자 유선식 윤희동 이경수 이미예 이원형 이일길 장영우 최영신 최이원 한창주 호경진 홍인표 황지영 이크리스 합계:\$2,655	성전헌금	김옥보 김원호 김찬구 노혜숙 민기남 박인식 박정자 변정선 유경자 유선식 윤희동 이경수 이미예 이원형 이일길 장영우 최영신 최이원 황지영 이크리스 감사헌금 : \$370(박이레네) 합계 : \$1,055
주일미사 현금 : \$2,615	Refund: \$29.23	성물판매\$1,163-성물구입\$948.50=이익금\$214.50	

◆한국학교소식

- 학기말 시험 (6월 7일) - 시상 : 6월 14일 중강식
- 2014~15년도 종업식: 6월 14일(1:30 ~ 3:00 pm)
- 2015-16년도 새 학기 등록
기간 - 5월 31일 ~ 6월 14일 매주 일요일
시간 - 10:30 am ~ 12:00 pm
* 6월 14일 까지 등록 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수강 신청
기간 : 6월 20일~8월 8일 매주 토요일(7월 4일 제외)
시간 : 0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LA 대교구 강주원 가브리엘, 송용주 시메온 신부 사제수품식 및 첫감사미사

- 사제수품식 : 5월30일(토) 오전 9시 LA주교좌 성당
- 첫감사미사: 31일(주일)오후5시성 그레고리 한인성당
900 S. Bronson Av. LA, CA 90019
- 31일(주일) 성 라파엘성당 12366Rosecrans Av. Norwalk
리셉션 12:00 미사 후 라파엘 홀
- 한인교우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함께 자리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 봉사자 모집

- 자격:나이제한 없음, 열정적이고 성실한 가톨릭 신자 분.
- 모집분야: 방송을 진행해 주실 MC분들,
웹사이트 관리, 전화서비스, 홍보, 사진, 사무정리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섬표"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9th~12th)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드 796-6763	
차 장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539-3377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5/15(금) 오전11시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00-05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5/15(금) 오전11시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508-2912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5/8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213-700-6983 5/8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5/17(일)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26> 이일언 읍 (1767-1839년)

...긴 세월을 옥에서 보내고 오늘에야 비로소 내게
천당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런 경사를 맞아서 왜 우
는 것이냐? 비통해 하지 말고 꼭 이 아버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도록 하여라...

충청도 홍주 출신 이일언 읍은 어려서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귀양을 갔는데, 그곳 관장의 눈 밖에 나서 다시 옥에 갇혔고, 물도 얻어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0년을 갇혀 있는 동안 그는 갖은 모욕과 학대를 받았으나, 묵묵히 참고 따름으로써 참다운 신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개인 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된 이일언은 유배지로 찾아온 아내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고, 1826년 5월에는 연금에서 풀려나 전라도 임실의 대판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교리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듬해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피신을 권하는 아내에게 도리어 그는 “이전에 순교하지 못한 것이 분해 죽겠소.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궁벽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조차 없으니 기막힌 일이 아니겠소.”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전주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이일언은 자신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전주 관장은 첫 문초에서 이일언의 전력을 알아내고는 잔혹한 방식으로 매질했으나, 그는 의연하게 모두 감내했습니다. 키가 작고 외모도 불품없는 이일언이었지만 굳센 의지로 관원들의 주목을 받았으니, 아전들은 “우리가 외모만 보고 저놈을 잘못 판단했네. 저놈은 일당의 두목 중 한 명인 게야.”라고 수군댔습니다. 문초와 형벌이 며칠 간 계속되었지만 이일언의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므로, 관장은 사형 선고령을 내린 다음 그를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후, 이일언은 김대권 베드로 등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남아 있다 한들 아무려면 어떻소? 우리가 여기서 죽기만 한다면야 그 또한 천주를 위한

죽음이 아니겠소?” 이일언은 72세가 되던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임금의 명으로 전주 숭정사에서 참수 형으로 순교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그의 뒤를 자식들이 울며 따라오자, 이일언은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옥중에서 신음해 오다가 오늘 마침내 천국으로 떠나는 것이다. 왜들 우느냐? 오히려 나의 행운을 기뻐하여라.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하고, 너희도 훌륭한 교우가 되거라.”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사랑이신 주님,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 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오니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시편31,25)가질 수 있
도록 도와주소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잔해에 갇혀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연민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마음을 굳세게 가지도록 해주소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당신의 위로와 평화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음을 얻는 일

조개를 해감 할 땐 소금물에 담그는데
바닷물의 농도와 비슷할 때
조개는 모래나 갯 내를 토해낸다고 합니다.
제 속과 같을 때 조개는 스스로
제 안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도 다르지 않겠지요.
사랑을 받는 것도 용서를 청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게
먼저란 생각입니다.

- 이영 아네스-